

# 문화중심도시의 의미와 성공적 조성방안

## Meaning of Culture Cities and Creative development

이병민(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yurifin@kocca.or.kr)

최근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문화중심도시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다른 오해들에 대해서 문화중심도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도시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로서 도시의 기능이 문화생산과 향유에 집중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문화중심도시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삶의 방식에서 의미를 찾고, 문화가 중요한 준거(準據)의 틀이 되고, 판단력과 행위 선택의 중요한 기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조환경(建造環境)으로서의 예쁜 건물들이 들어차고, 음악과 미술이 넘쳐나며, 곳곳에 문화재가 그득 들어찬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건물, 시설, 예술품, 관광현상 등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맥락(context)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 따라서, 문화중심도시란 인간 존재의 가치, 인간 삶의 의미가 구현되고 이웃 간의 관계가 개방적으로 소통되며 서로를 거울삼아 변혁과 재창출이 일어나는 도시이자, 문화가 기념물이나 예술품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중심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문화중심도시에서는 도시를 형성하는 문화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부단히 새롭게 문화의 질적, 양적 발전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문화생산, 문화향유 뿐 아니라 국내외 타문화(他文化)와의 네트워크와 피드백이 있어야 하며, 시민의 생태학적 적소(niche)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정체성, 존재 가치, 삶의 의미들을 충분히 구현하는 '문화적 사물'이 생산되는 도시가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작은 문화공동체들을 만들고, 주체적으로 시민문화를 형성해 나가면서 시민과의 대중적 접촉, 시민의 욕구, 지역에서 자라온 전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방향이 상정될 수 있다.

첫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제도에 기반한 생활방식이 적용되어지는 시민주체형의 도시가 되어야만 한다. 둘째, 다른 생명체에 대한 배려와 후손에 물려줄 자산으로서 지속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생태주의적 도시이어야 한다. 셋째, 아시아와 글로벌 문화의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문화마당이 조성되어져 호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이어야만 한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기 위해 문화산업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생산-매체-소비의 자기창조시스템이 구비된 장소마케팅 중심도시여야만 한다. 이런 기반이 갖추어져야만 문화중심도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